

# “‘쾅’ 소리 나더니…” 붕괴 현장 근로자들 ‘혼비백산’

광주대표도서관공사장 붕괴사고

굉음·흔들림 너도나도 감지  
당시 대피 안내는 진행된 듯  
가운데 막혀 다른 통로로 대피  
남은 매몰자 신속 구조 소원

“지하 2층까지 들린 소리에 무슨 일이 났다 싶었는데… 사고 현장을 보니 아무 말도 안나왔어요.”

11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작업 하던 차림 그대로 나온 현장 관계자들은 놀란 가슴을 연신 쓸어내리며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안부를 알렸다.

일부 관계자들은 붕괴 잔해를 보면서 “어떡하나”고 발을 동동 굴렸다.

철골이 휙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얹히고 살꺼 잔해를 해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구조 당국은 나머지 매몰자 2명의 구조를 위해 야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보이는 그 속에 아직 나오지 못한 동료들이 있어 서다.

잔해 더미 속에 보인 거대한 철골빔은 위로 향하는 대신 엇가락처럼 휘어 바닥에 꽂혀있다

피한 상태였다. 특히 붕괴 당시의 충격을 보여주듯 콘크리트는 크고 작은 조각으로 산산히 부서졌고,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할 철근도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앞서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의 인력은 곳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4명 매몰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조 인원 파악, 매몰 지점의 접근 방법 등을 모색했다.

그러나 현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2명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해 구조와 함께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매몰된 이들 4명 중 2명은 철근 작업을, 다른 2명은 각각 미장과 배관 보호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너무나 무서웠고, 지금도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던 임모(40대)씨는 “콰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며 “3초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고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하 2층 작업자는 “우당탕탕”하더니 대피 하라는 말이 들렸고, 몸도 저절로 움직였다”며 “원래 통로가 3개인데 가운데가 막혀 오른쪽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인부 김모(50대)씨는 “사고 지점과는 반대 방향이라 무사했지만, 너무나 놀랐다”며 “매몰자 모두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연상·윤찬웅·서현우 기자

## 檢,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징역 20년’ 구형

1심 ‘장기 12년·단기 7년’

“범행 후 행적 매우 불량”

친부모에게 벼려진 자신을 거둬 십수년 동안 기위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재차 증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단기 7년·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진도군 임회면 소재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10년 9월 1일 태어난 A군은 같은 해 12월 길거리에 벼려졌다.

박스에 담겨 있던 A군을 발견한 인근 주민 B씨는 별도의 입양 절차 없이 그를 키웠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A군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B씨와 생활 태도 등 문제로 자주 부딪쳤는데, 사건 당일도 그랬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군의 힘에 놀려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급기야 A군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군은 자택에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범행과 무관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 조사에선 어머니가 들어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부검 을 원하지 않는다는 수사를 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A군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서야 태도를 바꿨고 1심에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1심 당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은 권고사항”이라며 “피고 인의 범행 이후 행동은 매우 불량했고, 적극적 양형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의 무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A군 측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큰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해 1월 15일에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연예기자

## 철도노조 총파업, 노사 ‘잠정합의’로 유보

예고했던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이 노사 간 잠정합의에 따라 유보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내부 절차 과정이 남아 있어 향후 파업 여부가 다시 논의될 여지도 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7시께 코레일(한국철

도공사)과 집중 교섭 끝에 임금·성과급 정상화, 안전 인력 확충 등 핵심 요구안을 둘러싼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이날부터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철도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3시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정상화’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0분 만에 협상을 잠정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0시께 코레일이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협상을 시작했고, 새벽까지 이어진 이른바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 가 이뤄졌다. /윤천웅 기자

## 법원, 이정선 市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동창 감사관 채용’ 외압 의혹

이 교육감 “검찰 공정성 의문”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 교육청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자체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검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판단 중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연예기자

## 또래 폭행 등 강도상해 10대 구속영장

또래 중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군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B(16)군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지별에 관한 법률을 위반(공동공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친구 C군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을 둘러싸고 상해를 입히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했다.

B군은 지난 8월부터 A군 일행과 어울려 다니면서 또래들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_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풍나무 / 고탄성 카본 / 활동

사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사프트 50g

A100\_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골프엘보 원천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풍나무 / 고탄성 카본 / 활동

사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5

최적의 블루스톤 부드러운 스팟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풍나무 / 고탄성 카본 / 활동

사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